

함평 민원봉사실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최선



함평군이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 민원응대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원봉사실 민원응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기미천 CS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력에 힘을 더하는 친절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친절 서비스 마인드 확립 ▲민원인의 유형에 따른 응대 기법 ▲불만 민원인 대처방법 등 실

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민원인의 유형과 상황에 따른 사례 중심의 교육이 실시돼 실제 민원응대 과정에서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진 민원봉사실장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정섭 기자

담양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 취득과정' 운영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꿈 job고!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취득과정'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미취업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되며, 수료 후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취득과정은 필기, 실기 및 기출문제풀이의

7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이달 27일까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군민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특강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및 이력서 작성 지원과 같은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흥군새마을회 일손 부족 농가 돋기 앞장

장흥군새마을회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장흥군협의회는 주말을 이용하여 새마을회원과 회원가족 50여명과 함께 일손 부족으로 수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 활동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하여 진행됐다.

관산읍 방촌마을 마늘밭에서 자녀와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

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600평의 마늘밭 수확과 선별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가는 "매년 가을 수확 시기가 되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새마을 회원들이 도움을 주어 힘이 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김정원회장은 '덥고 힘은 들었지만 자녀들과 함께 농촌 일손 돋기를 실시해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주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나주시 "SRF 10년 가동안 합의된 바 없다" 입장

국무조정실 주관, 10년 가동안 당사자 간 협의만 했을 뿐

"시민 속이지 않아...진행 중인 소송에 최선 다할 것"

나주시가 광주권 쓰레기 대량 유입으로 촉발된 지역 최대 현안인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10년 가동안을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주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나주시가 지난 2월 15일 국무조정실이 제안한 SRF 열병합발전소 10년 가동안을 수용하는 답변서를 회신했다'는 기사에 대한 환경부 품질 검사에서 중금속 성분인 '납'과 '수분율'이 크게 초과해 불합격 판정이 난데서 비롯됐다.

또 가동 기한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해 당사자이자 발전소 건설·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직접 연결된 광주

광역시도 10년 가동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나주시는 지난 2월 10일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한 가운데, 발전소 가동의 분수령이 될 '고형연료 사용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본격 진행될 소송은 지난 해 난방공사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한 환경부 품질 검사에서 중금속 성분인 '납'과 '수분율'이 크게 초과해 불합격 판정이 난데서 비롯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SRF 열병합발전소 10년 가동안'과 'SRF 소송 관련 문제', '이해 당사자의 역할'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있었지만 합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말했다.

설상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최종 결정은 주민수용성 조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국무조정실에 'SRF 10년 가동안' 합의안 초안이 작성됐을 경우,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수용성 조사(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관찰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나주시가 SRF 10년 가동을 수용했다'는 보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 사항 중 일부분만을 확대 해석한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그간 SRF 갈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시민을 속이거나 기만한 사실이 없었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SRF 소송 대응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청 기자



장성 서삼면, 서삼초 학생·학부모 초청 '모내기' 체험

장성군 서삼면 상평마을에서 지난 10일 서삼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내기' 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삼초등학교 35회 졸업생인 쌀전업농장성군연합회 서동환 회장이 주관했다.

영광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영광군은 수입산 김치보다 3배 가량 비싼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농수산물을 소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에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라남도 또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율표시제 지정 정보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완료되면 낭도장터(리얼커머스)를 통

해서 도내 소재 생산업체가 생산한 국산김치 완제품 또는 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국산김치 자율표시 지정을 받지 못한 업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를 받고 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영광=서종민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직 인수위

자문위원회 출범...활동 시작

윤병태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여성구)는 14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인수위 활동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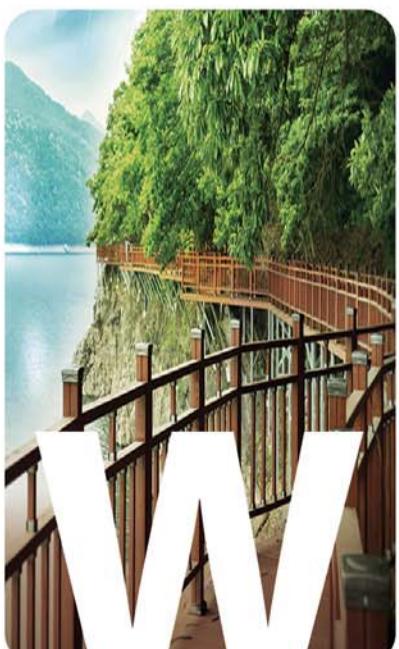
자문위원회는 인수위 운영 기간 동안 민선 8기 시정 비전 및 목표, 주요 정책 방향,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통해 성공적인 인수위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이기병(사) 함께 만드는 세상 이사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토인석 광주군민협회 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 19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인수위 회의실(나주일자리종합지원센터 5층)에서 열린 자문위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및 자문위원 소개, 운영 방안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민선 8기 나주시장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각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륜이 나주를 글로벌 강소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인수위 활동을 위한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나주=서성준 기자



색(色)채도시 장성에서 즐기는 색(色) 다른 여행

옐로우시티 장성

